

42만km 탄 버스로 편도 120km 등교...위험 안고 달린다



〈중〉 노선·노후버스 개선 '하세월'

전남지역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 대한 개선 요구는 10년 넘도록 끊이지 않고 제기됐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장애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된 현재까지 매년 노선 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두꺼운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남 특수학교 버스 29대 중 절반 이상 9년·12만km 넘어 차량 교체 기준 충족했지만 교육청, 예산 핑계로 소극 행정 사립 6대 중 1대 교체 진행 중 학교 측 노선 다변화 엄두 못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 수의 경우 2022년 1174명에서 1197명(2023년)→1240명(2024년) 등으로 늘어났고 전남 9개 특수학교 내 학급 수도 2022년 196학급에서 2023년 220학급, 2024년 231학급으로 늘었다.

하지만 들어가는 '바늘 구멍'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형편이다. 특수학교 입학정원은 한 학급당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한정돼 있다.

고흥·곡성·구례·담양·무안·보성·신안·영광·완도·장성·장흥·진도·화순·해남 등 14개 시·군은 특수학

교가 아예 없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둔 부모들은 지역을 넘나드는 장거리 통학을 감수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통학버스도 부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도 턱없이 부족하다.

광양햇살학교는 5대의 통학 버스를 운영중이며 여수여명·순천선혜·나주이화학교는 4대씩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목포인성학교와 함평영화학교는 4대, 소림학교 3대, 덕수학교 2대, 은광학교 1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46인승 대형버스를 이용하는데 학교 학생 수와 상황에 따라 34인승 중형 버스도 통학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한 대당 20~30명씩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기준 탑승인원은 여수여명학교 123명, 목포인성학교 113명, 순천선혜학교 107명, 나주이화학교 96명, 광양햇살학교 102명, 함평영화학교 108명, 소림학교 70명, 덕수학교 34명, 은광학교 29명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전남 곳곳에 거주하다보니 버스당 2개 시·군씩 묶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편도 120km씩 왕복 240km를 타고 등교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이 일반인도 견뎌내기 쉽지 않은 등교를 하고 있는

■전남 특수학교 통학버스 최장 운행시간

교명	출발(오전)	소요시간
함평영화학교	6시 12분	2시간 33분
은광학교(영암)	7시 12분	1시간 30분
목포인성학교	7시 12분	1시간 20분
소림학교(영암)	7시 25분	1시간 30분
덕수학교(강진)	7시 25분	1시간 20분
광양햇살학교	7시 40분	1시간 10분
여수여명학교	7시 40분	1시간
순천선혜학교	7시 43분	57분

것이다.

◇통학버스 시설도 불안=오래된 통학버스가 대부분이라 편할 리도 없다. 학교측은 차량을 늘려 노선을 다변화하기는 커녕,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차량 한 대당 예산은 구입비 2억 5000만원과 연간 2500만원, 인건비 6000만 원, 운영비 최대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학교는 버스 연한 9년과 12만km 주행을 충족해야만 차량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교체 또한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입비와 차량이 준비될

때까지 수리비 지원을 받으며 버텨야 한다. 차량 준비 과정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9개 특수학교가 운행 중인 버스 29대 중 16대가 차량 연한(9년)을 넘어섰고 주행 거리 12만km를 넘긴 차량은 18대였다.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운행 중인 차량 4대가 모두 차량 연한을 넘겼고 주행 거리도 37만~42만여km에 달한다.

덕수학교는 차량연한을 넘기고 주행 거리 29만~31만km에 달한 버스 2대를 운영중이고 소림학교는 주행 거리 43만~45만km, 여수여명학교도 11년된 버스(주행 거리 38만km)가 학생을 실어나른다. 오래된 차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도 쉽지 않다.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는 전체 29대 중 8대에 불과하다. 모든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경우 좌석도 줄어들어 또다른 버스 구입으로 이어져 학교측도 꺼리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예산 핑계만 내세우며 소극적이다. 한 해에 1~2대 정도를 교체 지원해 주는 것도 신경쓰고 있다는 식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교체 대상 6대 차량 중 1대 교체하는 중이며 2026년 3대, 2027년 2대, 2028년 1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전달 2025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이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이 주민대표들에게 올해의 책 선정 도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애인 부부 합동결혼식 올린다

광주시 서구, 24일 6쌍...여행비·혼수비 등 지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식을 치르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이 열린다.

광주시 서구와 서구장애인복지관 등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위더스웨딩홀(3층 펠리체홀)에서 '장애인 웨딩지원-당신의 특별한 날 드림(dream) 웨딩' 합동결혼식을 연다.

서구는 저소득층 장애인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의 주인공은 서구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부부 여섯 쌍이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서류상으로는 결혼했으나 번번한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했던 이들이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A(64)씨는 중국인 B(여·43·청각장애)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들은 국적도, 문화도, 사용하는 수어도 다르지만 같은 청각장애인이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마음이 깊어졌다고 한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인 C(65)씨는 지인의 소

개로 베트남 출신 D(여·36·청각장애)씨를 만났다. C씨는 "결혼 사진 한 장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은 아쉬움이 아닌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결혼식은 '합동결혼식'으로 열리며, 한 부부당 10명 이내의 가족, 친지, 친구 등을 초대해 새 출발을 축하받는다.

부부들은 오는 30일 광주 근교로 일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돕는 '꿈다정다락 결혼여행'도 지원 받으며, 이와 맞춤형 혼수 가전제품을 세대별 100만원 상당 지급받아 신혼살림을 꾸리는 데도 도움을 받는다.

서구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 후원금으로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턱시도를 비롯해 장소대관, 사회, 부케 및 부모, 분식 앨범, 결혼식 진행요원 인건비, 식사 비용 등 전액을 지원한다.

이대만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장은 "심사위원단이 당초 다섯 부부만 선정하려 했으나, 각기 절박한 사연을 지닌 여섯 부부가 지원을 해 모두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교육청, 일반직 6급이하 승진 기회 확대

홀수달마다 인사 시행

전남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일부 일반직 승진 인사를 격월제로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급 승진 인사 등을 격월(1월·3월·5월·7월·9월·11월)제로 시행하는 등 승

진 기회를 확대했다.

정기 인사(매년 1월과 7월)와는 별도로, 휴직·퇴직 등 결원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선 기관과 학교에 필요 인력을 신속히 충원해주는 조치이다.

도 교육청은 새 규정에 맞춰 21일 승진 71명(7급 9명·8급 62명), 전보 14명, 파견 6명, 신규임용 13

명 등의 인사를 5월 1일 자로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또 승진 적체 해소와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기인사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노관열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bigkim@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